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8월(제74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유학생 여러분, 오이타의 매력을 널리 알려 주세요!

🔥 오이타현 매력 발견 스터디 투어 오이타현



지난달 16일, 오이타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중 장학생을 대상으로 스터디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스터디 투어의 목적은 유학생의 오이타현 음식, 문화, 관광,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SNS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알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투어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수평 이착륙을 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오이타 공항을 방문한 후, 유학생 대상 인턴십 설명회에 참가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국제 교류 및 이해를 위해 힘써 주고, 나아가 미래에 오이타현과 다른 나라와의 가교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Oitastudytour

SNS에서
위 해시 태그를
검색하시고
스터디 투어에
참가한 유학생이
직접 쓴 게시글을
확인해 보세요!



전통 의상이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기쓰키

🔥 전통 의상 촬영 명소 소개 기쓰키시

기쓰키(杵築)시에서는 '기쓰키 전통 의상 응원 선언'의 일환으로 전통 의상 '기모노(着物)'를 입고 방문하시는 분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모노가 잘 어울리는 기쓰키의 촬영 명소에서 여러분의 인생 샷을 찍어 보세요!



大原邸

- 오하라 저택

전통 의상을 입고 찍으면
무조건 SNS 감성 샷!



能見邸・台の茶屋

- 노미 저택, 다이노 찾집
옛스러운 무사 저택에서
즐기는 특제 디저트!



詐屋の坂

- 스야노 언덕

흙담과 돌담이 인상적인
언덕에서 산책을!



杵築城

- 기쓰키 성

성하 마을을 내려다보는
'마을의 상징'을 배경으로!



きつきお城まつり

- 기쓰키 성 축제

에도 시대로 타임 슬립!

아사다 고류(麻田剛立)

기쓰키시 출신 에도 시대 천문학자, 일본의 근대 천문학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달의 크레이터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기쓰키의 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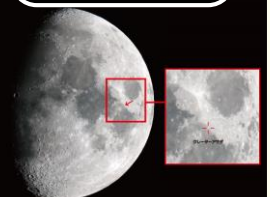


사진 제공 : 요코다케 카라관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8월(제74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65세 베피 타워, 곧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 볼게요!

베피 타워&베피 아트 뮤지엄 베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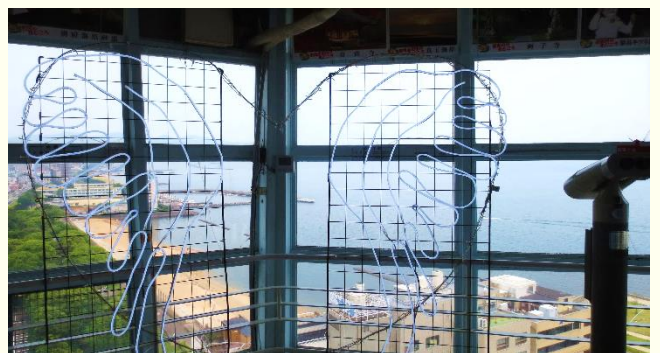
나는 타워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혹자는 타워의 입장료가 비싸다며 방문을 거리끼기도 하지만, 뭔가를 모으는 것을 참 좋아하는 나는 타워 안에 있는 메달 자판기에서 그 타워의 ‘메달’을 사기 위해 타워에 오른다. ‘언젠가 일본 전국에 있는 모든 타워의 메달을 모으겠다’고 결심한 나에게 베피 타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베피 타워의 첫인상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타워들과 조금 달랐다. 아주 오래되고, 명색이 타워인데 그리 높지도 않은 데다가, 빨간 네온 글씨로 ‘아사히 맥주’라고 적혀있는 모습... 지역의 상징 같은 타워에 ‘맥주’ 상업 광고라니,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베피 타워의 상징 중 하나였던 이 네온사인은 광고 계약이 종료되어 올해 6월에 철거되었고, 지금은 타워 외벽에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밖에서 봤을 때 예전에 비해 다소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해 3월에는 타워를 소유하는 회사도 바뀌었는데, 타워가 준공된지 65년이나 됐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8월부터는 대대적인 내부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전망대 운영은 중지, 2023년 1월 완공 예정). 더불어 타워 2층에는 올해 3월에 오픈한 조금 특별한 미술관이 있다고 하여 다녀왔다. (※취재일 : 2022년 6월 17일, 전망대 운영 당시)



‘베피 타워’는 JR 오이타 역에서 전철을 타고 베피역에 하차한 후, 도보로 약 10분 정도 이동하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타워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1층에 매표소 대신 티켓 자판기가 놓여 있어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①그 자판기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②엘리베이터로 17층 전망대에 오른 후 ③그곳의 직원에게 입장권을 건네면 된다. 전망대 내부는 엄청나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망원경이나 포토존, 타워 소개 패널, 그리고 타워 신사까지 등 나름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다.



물론 베피 타워의 하이라이트는 ‘360도 파노라마 전망’이다. 타워의 높이는 90m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베피 만과 더불어 오이타시 방향의 다카사키야마 산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베피 시내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 증기는 이곳이 베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 주기에, 베피 시내에 들 때는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는 한 명의 관광객으로서 보수 공사 후의 베피 타워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기대하는 중이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8월(제74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타워 2층에는 전망대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립미술관 ‘벳푸 아트 뮤지엄’이 있다. 이 미술관은 지난해 벳푸 타워를 취득한 회사 ‘가이세이 통상(開世通商)’이 개관한 것으로, 지난 2017년에 벳푸역 근처에서 개관하였다가 올해 3월에 벳푸 타워로 이전하여 리뉴얼 오픈하였다. 주로 연예인의 그림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오이타현과 인연이 있는 작가의 작품 등 약 400점 이상의 다양한 미술품이 있다. 일부 작품은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다면 직원에게 문의하자.



하고 있어 눈으로만 작품을 감상하지 않고 직접 즐길 수 있기에 더욱 인상 깊었다. 전시 작품 또한 눈길을 끄는 재미있는 작품이 많이 있으며, 오이타현 출신 작가가 그린 오이타의 명소나 벳푸 타워 미니 어처 모형 등 지역과 관련된 작품도 적지 않아 오이타 거주민으로서 더없이 반갑기도 했다.

타워 내부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좋고 깔끔한 분위기라 앞으로 벳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듯했다. 가볍게 미술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곳도 들러 보기를 추천한다.



나는 미술 작품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조예가 깊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왠지 ‘미술관’이라 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고상한 이미지라 선불리 가기 어려웠는데, 이곳은 여느 미술관과는 다르게 캐주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안내는 물론 작품 사진 촬영이 매우 자유롭다는 점인데, 오히려 미술관 측에서 ‘인스타용 사진 촬영 스폿’이라는 안내를 해 주거나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촬영을 장려



벳푸 타워 & 벳푸 아트 뮤지엄 (別府タワー&別府アートミュージアム)

- 주소 : 別府市北浜3丁目10番2号(〒874-0920)
- 문의 전화 : 0977-26-1555(일본어 대응)
- 운영 시간 <전망대> 09:30~21:30(※현재 휴관)
<미술관> 09:00~17:00
- 입장료 <전망대> 성인 500엔 / 학생 400엔
<미술관> 성인 700엔 / 학생 500엔
<통합권> 성인 1000엔 / 학생 800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8월(제74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19화

<단편>

 나의
스트레스
해소일지.1

산다는건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 것과
같아서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부산에서 살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종 갔던 곳이 있었는데



내가 살던 곳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한시간 반이 걸리던
해동 용궁사라는 절이었다.



그곳에 있는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슬며시 향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꼭대기에 도착하면 펼쳐지는 바다와
철썩이는 파도소리 속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언젠가 다른곳에 가서 살아도
이런 장소 하나쯤은 만들고 싶었던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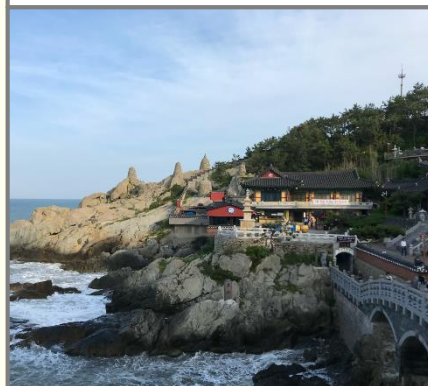
오이타에 오자마자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계속

높아서
타트여있고
그리 멀지않고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곳이
있을까...



여기가 바로
부산 해동용궁사!
꽤 멋있죠?